

## 한국어 형태 단위의 분류: 비활용 의존어기를 중심으로\*

송재목\*\*

형태 단위(morphological unit)의 성격은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개별 언어 안에서도 여러 이질적인 형태 단위들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어기(base)’가 자립성, 복합성, 굴절성(활용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한국어에서 용언의 어기를 형성하는 비활용 의존어기들을 이들의 형태론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 용언들의 어기는 자립어기들도 있지만 의존어기들도 있으며, 의존어기들 중에는 스스로 활용접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비활용 의존어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어근, 불규칙적 어근, 형태소 어근’ 등과 같은 용어들로 분석하여 왔으나, 그 전체적인 모습이나 성격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였다. 한국어에서 용언의 비활용 의존어기는 먼저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경우와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비활용 의존어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i)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형식; ii) 용언의 어근과 중첩형 의성의태어의 어기로 사용되는 형식; iii) 한자어/외래어 어근. 이들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여러 파생접사들과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대체로 유사한 접사들과 결합하여 용언 어간을 형성하지만, 첫 번째 유형에서는 ‘-그리-, -스럽-, -하-’가 흔히 사용되고, 두 번째 유형에서는 ‘-거라-, -대-, -이-’가 널리 사용된다. 한자어/외래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접사 ‘-스럽-, -하-’와 결합하여 형용사 어간을

\* 이 논문은 ‘2022년 세계 한국어학자 대회: 〈언어, 기능 그리고 사용〉(고려대학교, 2022.06.29. ~ 2022.07.01.)’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이며, 2024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형성한다.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비활용 의존어기에도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i) 활용 의존어근에서 파생된 어기; ii) 자립형식에서 파생된 어기; iii) 둘 이상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어기. 첫 번째 유형의 비활용 의존어기는 다시 용언의 어기로만 사용되는 형식, 용언 및 중첩형 의성의태어의 어기로 사용되는 형식, 어근 중첩에 의해 형성되는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용언의 어기로만 사용되는 형식을 파생시키는 접사와 용언 및 중첩형 의성의태어의 어기로 사용되는 형식을 파생시키는 접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상이하다. 비활용 의존어기들은 다시 접사 ‘-거라-, -대-, -스럽-, -이-, -하-’ 등과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한다.

핵심어: 형태 단위, 자립성, 복합성, 굴절성(활용성), 어근, 어기, 어간, 비활용 의존어기

## 1. 머리말

형태 단위(morphological unit)의 성격은 언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개별 언어 안에서도 여러 이질적인 형태 단위들이 존재한다. 형태 단위의 구별을 위해서 일반언어학에서는 ‘어기(base), 어근(root), 어간(stem), 접사(affix)’ 등과 같은 용어들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한국어학계에서도 이러한 용어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접사에 대해서는 그 문법적 성격이나 어기와의 상대적 위치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들이 이루어져 왔다.<sup>1)</sup> 그러나 접사에 대응하는 형태 단위에 대해서는 그 다양한 특성이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이들의 분류를 반영할 수 있는 용어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어기(base)에 대해서는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어근(root), 어간(stem), 자립형식(free form),

1) 접사에 대해서는 ‘굴절접사(inflexional affix),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 접두사(prefix), 접미사(suffix), 접요사(infix), 양면접사(circumfix), 관통접사(transfix), 초분접접사(superfix), 중첩접사(reduplicative affix)’ 등과 같은 분류들이 이루어져 왔다.

의존형식(bound form)’ 등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만으로는 어기의 이질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파악할 수 없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이들을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들 역시 부족했다. 이 글에서는 접사에 대응하는 형태 단위들을 ‘자립성, 복합성, 굴절성(활용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특히 한국어에서 자립성과 굴절성이 없는 형태 단위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접사에 대응하는 형태 단위의 분류 기준

접사에 대응하는 단어의 중심 부분인 형태 단위에 대해서는 ‘어근, 어기, 어간’ 등의 용어들이 학계에서 사용되어 왔다. 일반언어학에서 ‘어근’은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형태소로 모든 접사를 제거했을 때 남는 부분’, ‘어기’는 ‘단어에서 접사를 첨가하는 대상이 되는 부분’, ‘어간’은 ‘굴절접사의 어기’로 정의된다.<sup>2)</sup> ‘어기’는 접사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어근’이나 ‘어간’은 ‘어기’ 중에서도 특별한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어근’은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기, ‘어간’은 굴절접사와 결합하는 ‘어기’를 지칭한다. 단일 형태소로 된 어기는 어근과 동일하며, 어간이 단일 형태소일 경우에는 어기와 어근, 어간이 모두 동일한 형태 단위를 지칭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만으로는 접사에 대응하는 형태 단위

2) ‘어근, 어기, 어간’의 정의와 지시대상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송재목(2020)에서는 ‘어근, 어기, 어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의 정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송재목(2020)을 따라 ‘어근, 어기, 어간’을 일반언어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을 따라 정의하고 사용한다.

(가) ‘어근, 어기, 어간’의 정의(송재목 2020: 893):

어근: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형태소로 모든 접사를 제거 했을 때 남는 부분

어기: (i) 단어에서 접사를 첨가하는 대상이 되는 부분

(ii) 단어에서 형태론적 과정을 적용시키는 대상이 되는 부분

어간: 굴절접사의 어기

의 특성과 유형을 제대로 반영하여 분류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단어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형태 단위인 ‘어기(base)’를 ‘자립성(independence)’와 ‘복합성(complexity)’, ‘굴절성(inflexionability)’라는 세 가지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들 형태 단위들의 특성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자립성’과 ‘복합성’은 형태론적 단위의 분류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기준이다. 형태론적 단위들은 다른 요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단어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립형식(free form)’과 ‘의존형식(bound form)’으로 나누어진다. 자립형식은 다른 형태론적 요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형식들이다. 반면에 의존형식은 다른 형태론적 요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단어로 사용될 수 없는 형식이다. 특정 형태론적 단위가 자립형식이라는 것은 그 단위가 항상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의존형식은 결코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다. ‘어기’나 ‘어근’, ‘어간’은 자립성의 여부에 따라 각각 ‘자립어기/의존어기, 자립어근/의존어근, 자립어간/의존어간’으로 나눌 수 있다.

어기의 성격은 언어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개별 언어 안에서도 여러 이질적인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리스어나 라틴어와 같은 굴절어에서는 주요 어휘부류에 속하는 명사나 동사의 어기가 대부분 혼자서는 단어가 되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접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형식이며, 또한 스스로 굴절접사를 취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어의 경우에는 주요 어휘부류의 어기들이 대부분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문장에서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형식이다. 한국어에서는 명사나 부사 등의 경우에는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단어가 될 수 있는 자립형식이다. 반면에 동사나 형용사의 어기는 활용접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형식이며, 이들 중 다수는 활용접사와 직접적인 결합이 가능하다. 이처럼 어기의 성격은 언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중국어처럼 어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언어가 있고, 그리스어처럼 어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가 있다.

복합성은 형태론적 단위가 단일 형태소 또는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이 또한 전통적으로 형태 단위의 분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복합성은 형태 단위의 분류 기준으로 자립성만큼 전면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형태 단위 중에서 복합성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은 어근뿐이다. 단어의 중심 부분을 형성하는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근’이라는 명칭으로 구별하고 있으나,<sup>3)</sup>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기’나 ‘어간’을 지칭하는 용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기는 또한 ‘굴절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굴절성’이란 어기가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어기의 ‘자립성’이나 ‘복합성’과 어기의 ‘굴절성’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즉 자립어기인지, 복합어기인지의 여부와 굴절접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형태론 연구에 있어서 자립성이나 복합성은 어기의 분류조건으로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굴절성에 대한 논의는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형태론에서도 인구어가 언어학 연구의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인구어는 단어의 구조가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으며, 명사나 동사, 형용사와 같은 주요 어휘 부류들에 있어서 어기들은 자립형식이든 의존형식이든 기본적으로 굴절성을 가진다.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명사나 동사의 어기들은 대부분 의존형식이지만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으며, 영어에서 명사나 동사의 어기들은 대부분 자립형식이지만 역시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있다. 즉 인구어에서는 대부분의 어기가 자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굴절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기를 굴절성의 여부에 따라 나눌 필요가 없었거나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인구어의 개별 언어에서도 어근이나 어기가 자립성이나 굴절

3) 합성어의 경우에는 단어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이 두 개일 수 있으나, 합성어의 결합단위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형식일 수도 있고,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형식일 수도 있다.

성에 있어서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 가. *book/book-s, kick/kick-ed, warm/warm-er, ...*

나. *bio-logy, geo-logy, bio-metry, geo-metry, ...*

다. *in-ane, cran-berry, gorm-less, luke-warm, ...*

영어에서 명사나 동사, 형용사와 같은 주요 어휘부류에 속하는 단어의 어기들은 대체로 굴절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1가).<sup>4)</sup> 그러나 신고전어합성어(neoclassical compound)에서 관찰되는 의존어근들인 *bio-, geo-, -logy, -metry* 등은 스스로 굴절접사와 결합할 수 없다(1나). (1다)에서 유일형태소(unique morph)인 *-ane, cran-, gorm-, luke-* 등은 모두 의존어근으로 분석되며, 굴절접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즉 영어의 어기들은 대부분 자립형식으로 굴절할 수 있지만, 일부 어기들은 의존형식으로 굴절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특정 형태 단위가 굴절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립형식이어야 하며, 의존형식들은 굴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기의 속성을 자립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굴절성에 따른 분류는 잉여적인 특성이 된다. 즉 영어에서는 주요 어휘부류의 자립어기는 굴절성을 지니며, 의존어기는 굴절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기의 굴절성에 대한 논의가 일부 언어에서는 잉여적인 의미 없는 논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립어나 굴절어와 비교해 형태론이 복잡하게 발달한 한국어에서는 그만큼 어기의 유형도 다양하다. 한국어의 어기 또한 복잡성과 자립성, 굴절성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한국어의 어기는 먼저 복잡성에 따라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기(어근)’와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기’로 나눌 수 있다.<sup>5)</sup> 어기는 또한 자립성에 따라 ‘자립어기’와 ‘의존어기’로, 굴절

4) 물질명사, 추상명사와 같은 명사의 하위부류는 복수 표지 -s를 취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이는 특정 하위 부류의 형태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명사도 문맥이 허용하면 복수 표지를 취할 수 있다.

성에 따라 ‘굴절어기’와 ‘비굴절어기’로 나누어진다.

자립성과 복합성, 굴절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한국어 어기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다양하게 분류를 시도해 왔다. 그러나 어기의 다채로운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그 일부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 (표 1).

〈표 1〉 복합성, 자립성, 굴절성에 따른 어근/어기의 분류와 선행연구에서의 분류

어기의 분류			이익섭(1975)	고영근(1999)	송정근(2009)	최형용(2016)
단일 (어근)	자립	(비굴절)	어간	규칙적 어근		단어 어근
	의존	굴절	어간	규칙적 어근		
		비굴절	어근	불규칙적 어근	단일어근	형태소 어근
복합	자립	(비굴절)				단어 어근
	의존	굴절				
		비굴절	어근		복합어근	형태소 어근

이익섭(1975)는 ‘어근’을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로, ‘어간’을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 부분”으로 정의한다. 이익섭(1975)에서는 비굴절 의존 단일어기와 비굴절 의존 복합어기 중 일부가 ‘어근’으로, 자립 단일어기와 굴절 의존 단일어기는 ‘어간’으로 분류된다.<sup>6)</sup> 고영근(1999: 536, 2018: 325)는 국어의 어근을 품사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곡용/활용 어미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규칙적 어근’과 품사가 분명하지 않고 곡용/활용 어미와 자유롭게 붙지 못하는 어근을 ‘불규칙적

5)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기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어근’ 또는 ‘단일어기’로 지칭하겠다.

6) 이익섭(1975)의 ‘어근’ 개념은 추후의 연구에서도 대체로 이어지지만, ‘어간’ 개념에는 변화가 있다. 이익섭·채완(1999: 60), 이익섭(2005: 40), 이익섭(2011: 117) 등에서는 ‘어간’에 대해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중심부분’이 빠지고, ‘굴절접사(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어기’로 정의된다. 이익섭(1975)의 ‘어근, 어간, 어기’ 개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송재목(2020)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어근'으로 분류한다. 자립 단일어기와 굴절 의존 단일어기를 '규칙적 어근', 비굴절 의존 단일어기를 '불규칙적 어근'으로 분류한 것이다. 송정근(2009)은 이익섭(1975)의 '어근'을 내부구조의 복합성에 따라 단일어근과 복합어근으로 나누고, 복합어근을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복합성에 따른 구별없이 '어근' 개념을 사용한 이익섭(1975)에 비해 송정근(2009)에서는 어근을 '단일어근'과 '복합어근'으로 구별했다는 점에서 진척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최형용(2016)에서는 '어근'을 "파생어에서 접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다시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 어근'과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 어근'으로 나눈다(최형용 2016: 336). 최형용은 또한 어근을 단어의 자격을 가진 '단어 어근'과 단어로써 사용될 수 없는 '형태소 어근'으로 나눈다(최형용 2016: 340). 최형용의 '어근'은 일반언어학적 정의에서의 '어기'와 유사하고, '형태소 어근'은 이익섭(1975)의 '어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어기의 다양한 부류에 대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분류하여 지칭할 수 있는 개별적인 용어가 학계에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동일한 특성을 지닌 형태 단위들을 하나로 묶지 못하고, 오히려 이질적인 단위들을 동일한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형태론적 성격이 달라 하나로 묶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 단위들을 기존의 '어근, 어간'이라는 용어만으로 분류하고자 한 데서 생겨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자립 단일어기(자립어근)'은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명사, 수사, 부사, 관형사, 감탄사' 등이며, '자립 복합어기'는 이들이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자립어기들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명사 부류에 속한다. '자립어기'는 한국어에서 그 특성상 스스로 굴절접사를 취할 수 없으므로 굴절성을 가지지 않는다. 한국어에서의 굴절은 명사 공용과 같은 다른 어휘 부류의 굴절은 존재하지 않고 용언의 활용만이 존재한다. 즉 한국어에서의 굴절성이란 용언의 활용성을 의미한다.<sup>7)</sup> 따라서 한국어에서 굴절 의존어기는 모두 용언의 어간에 해당한다(이후의 논의에서



‘굴절/굴절성’은 ‘활용/활용성’으로 표현하겠다.).

한국어에서 용언의 어간은 혼자서 단어가 될 수 없는 의존어기이며,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활용어기이다. 즉 활용 의존어기이다. 그렇지만 용언의 어기 중에는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하지 못하는 비활용 의존어기들도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용언의 어기들 중에서 혼자서 단어로 사용될 수 없으면서 또한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기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8)</sup> 이들을 복합성에 따라 나누어, 3장에서는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비활용 의존어근, 4장에서는 복합형태소로 이루어진 비활용 의존어기들의 유형을 다루겠다.

---

7) 조사를 굴절접사로 취급한다면 한국어에서 자립어기들도 굴절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 철수가 영화를 본다. (명사+조사)

(나) 하나에 둘을 더하면 삼이 된다. (수사+조사)

그러나 이 글에서는 조사가 접어(clitic)이라는 입장을 따르며, 따라서 한국어에서 자립어기는 굴절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조사를 단어로 취급할 경우에도 이들은 굴절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국어에서의 굴절은 명사 곡용은 존재하지 않고, 용언의 활용만 존재하는 것이며, 한국어에서의 굴절은 곧 활용을 의미한다. 한국어에서 자립어기들이 굴절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어기’로 칭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립어기라는 말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다는 말이지, 항상 자립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한국어에서 자립어기에 해당하는 형식들은 파생접사와 결합할 수도 있고, 또 합성이나 중첩과 같은 다른 형태론적 과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잠재적인 어기라고 할 수 있다.

8) 비활용 의존어기에는 용언의 어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가을걷이, 글 짓기, 몸가짐, 오후싸개’ 등과 같은 통합합성어에 대해서는 이들을 [가을+걷이]의 합성어, [가을+걷+-이]의 파생어, [가을+ 걷이]의 파생어로 보는 여러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가을+걷이]의 합성어로 분석할 경우 후행요소인 ‘-걷이, -짓기, -가짐, -싸개’ 등은 모두 비활용 의존어기이지만 용언의 어기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용언의 어기로 사용되지 않는 비활용 의존어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 3. 한국어 비활용 의존어근

한국어 용언의 의존어근들 중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하지 못하는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3.1. 용언의 어근

한국어에서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용언의 어간은 모두 의존어근들이며, 이들은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활용 의존어근이다(2). 즉 한국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존어근은 모두 용언의 어근에 해당한다.

(2) 잡-(다): 잡-았-다, 잡-겠-다, 잡-고, 잡-아서, ...

      춤-(다): 춤-었-다(추웠다), 춤-겠-다, 춤-고, 춤-어서(추워서), ...

활용 의존어근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즉 활용어미를 직접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항상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활용 의존어근들은 파생접미사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하지 않는다. (3)의 ‘[[불+잡]+다], [[잡+히]+다]’에서 의존어근 ‘잡-’은 활용어미와 결합하기 전에 파생접사들(‘불-’, ‘-히-’)와 먼저 결합하므로,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한다고 할 수 없다.

(3) 가. 불-잡-(다): [불-잡-]았-다, [불-잡-]겠-다, [불-잡-]고, [불-잡-]아서, ...

      나. 잡-히-(다): [잡-히-]었-다, [잡-히-]겠-다, [잡-히-]고, [잡-히-]어서, ...

(2)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단일 형태소로 된 용언의 어간은 모두 활용 의존어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언의 어근이 모두 의존어근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파생어나 합성어인 용언의 경우에는 자립어근들이 용언의 어근이 될 수도 있다(4-5).

(4) 파생용언:

가. 동사: 구경-하다, 사랑-하다; 끄덕-대다, 잘-하다, ...

나. 형용사: 꽃-답-다, 자유-롭-다; 가득-하다, 못-되다, ...

(5) 합성용언:

가. 동사: 겁나다, 등지다, 앞서다, ...

나. 형용사: 값싸다, 기차다, 눈설다, ...

(4)의 파생용언에서는 자립어근인 ‘구경, 끄덕, 꽃, 가득’ 등이 파생접미사 ‘-하-, -대-, -답-’ 등과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고 있다.<sup>9)</sup> (5)의 합성용언에서는 자립어근인 ‘겁, 등, 값, 기’ 등이 의존어근인 ‘나-, 자-, 싸-, 차-’ 등과 결합하여 어간을 이룬다.

이 글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비활용 의존어기들이다. (2)에서 우리는 용언의 어근들이 의존어근이면서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있는 활용 의존어근들의 예(‘잡-’, ‘춤-’)를 봤다. 그렇지만 용언의 어근들이 의존어근일 경우 모두 활용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다음 (6)의 용언 어근들은 모두 혼자서는 문장의 구성성분이 될 수 없는 의존어근이며,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근들이다.<sup>10)</sup>

---

9) 파생어와 합성어, 합성어와 통사적 구성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구경하다, 꽃답다, 못하다’ 등에 대해서는 이를 파생어로 보는 견해와 합성어로 보는 견해, 또는 통사적 구성으로 보는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통사적 구성이라면 이 글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들이 합성어일 경우에 어간은 (5)의 어간과 같이 자립어근과 의존어근이 결합한 구조이다.

10) ‘비아냥’은 《표준국어대사전》 등에 ‘거리-, -대-, -스럼-, -하-’와 결합하여 용언 어간을 형성하는 비활용 의존어근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볼 때 자립어근으로 보아야 한다.

(가) ‘경로당 경선’이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나) 마지막 장사 밀천이던 트럭마저 팔았을 땐 주위의 비아냥을 받았다.

- (6) i. -갈(다): 감쪽-, 득달-, 득돌-, ...
- ii. -그리(다): 꺼꾸-, 떠둥-, 몽퐁/몽퐁<sup>-11)</sup>, 뽕당/뽕등-, 앙당/옹동/옹등/응등-, 짱당/짱등-, 쯡-, ...
- iii. -답(다): 아릅<sup>-12)</sup>, ...
- iv. -대(다): 어가-, 으스-, ...
- v. -스렵(다): 갑작-, 거추장-, 급작-, 남사-, 줌-, ...
- vi. -지(다): 거방-, 구성-, 오달-, 흐벅-, ...
- vii. -쩍(다): 맥-, 행망-, ...
- viii. -차(다): 당-, 박-, 벽-, 어귀-, 울-, 웅-, ...
- ix. -치(다): 꼬불-, 팽개-, ...
- x. -크리(다): 가증-, ...
- xi. -하(다): 거나-, 거룩-, 거북-, 건건-, 걸쭉-, 고소-, 깨끗-, 따뜻-, 버젓-, 빼근-, 솔깃-, 착-, 홀륭-, ...
- xii. -그리/크리(다): 웅/웅-, 쪼/쪼-, ...
- xiii. -그리/하(다): 곱송-, 앙당-, ...
- xiv. -대/차(다): 어기-, ...
- xv. -맞/스렵(다): 거렁-/가랑-, 딴적-, 새통-, 애살-, ...
- xvi. -맞/쩍(다): 갱충-, ...
- xvii. -맞/하(다): 쌀쌀-, 칠찰-, ...
- xviii. -스렵/지(다): 거방-, 걸판-, 암팡-, 양칼-, ...
- xix. -스렵/차(다): 현걸-, ...
- xx. -스렵/하(다): 괜-, 뗏뗏-, 엉큼-/양큼-, 탐탁-, ...
- xxi. -지/차(다): 웅골-, ...
- xxii. -지/하(다): 음팡-, ...

---

11) 용언의 어근으로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종종 다양한 내적변화를 겪는다: '몽퐁-/몽퐁-, 뽕당/뽕등-, 앙당/옹동/옹등/응등-, ...'

12) '아릅-답(다)'의 '아릅-'과 '아릅-차(다)'의 '아릅-'이 동일한 어근이라면 '아릅-'은 '답-, -차-'의 두 개의 파생접사와 결합할 수 있는 비활용 의존어근으로 분석된다.

- xxiii. -뜨리/치//트리(다): 닻-, ...
- xxiv. -맞/스럼/하(다): 양증-, ...
- xxv. -스럼/차/하(다): 매물-, ...
- xxvi. -스럼/지/하(다): 미옥-, 투박-, ...
- xxvii. -스럼/차/치(다): 야멸-, ...
- xxviii. -스럼/지/차/하(다): 우람-, ...
- xxix. -갈/거리/맞/스럼/-하(다): 생똥-, ...

(6)의 ‘감쪽, 득달, ...’ 등과 같은 어근들은 모두 혼자서는 단어가 될 수 없는 의존어근이며,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된다. 또한 이 의존어근들은 스스로 활용접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비활용 의존어근들이다. 이들이 활용접사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갈-, -거리-, -그리-, -답-, -대-, -뜨리-, -맞-, -스럼-, -지-, -찍-, -차-, -치-, -크리-, -트리-, -하-’ 등과 같은 다양한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해야 한다.<sup>13)14)</sup> 이 경우 의존어근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접사에는 차이가 있다. (6i)의 ‘감쪽, 득달’ 등은 접사 ‘-갈-’, (6ii)의 ‘꺼끌-, 떠둥-’ 등은 ‘-그리-’, (6iii)의 ‘아름-’은 ‘-답-’, (6iv)의 ‘어기-, 으스-’는 ‘-대-’, (6v)의 ‘갑작-, 거추장-’ 등은 ‘-스럼-’과만 결합한다. 의존어근에 따라 하나의 접사와만 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게는 다섯 개의 접사와 결합

13) (6)에서 이러한 유형의 비활용 의존어근들과 용언 어간 형성의 파생접사들을 모두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의 예들은 모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말샘》에서 확인한 것들이다. ‘가지런하다, 가락하다, 궁금하다, 깜찍하다’ 등과 같은 예의 ‘가지런, 가락, 궁금, 깜찍’도 비활용 의존어근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은 ‘가지런은/도 하다, 가락은/도 하다, 궁금은/도 하다, 깜찍은/도 하다’와 같은 구성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4) (6)에서의 ‘-갈-, -그리-, -답-’ 등에 대해서는 이들을 합성어의 후행요소(직접성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파생접사로 본다. 이들을 합성어의 직접성분으로 보더라도, 선행 요소의 성격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쪽같다’를 ‘감쪽+갈-(다)’의 합성어로 볼 경우에도 선행요소 ‘감쪽-’은 더이상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혼자서는 단어로 사용될 수 없는 의존형식이며,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형식이다.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 파생접사들 중에서 ‘-그리-, -스럽-, -하.’가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파생접사들 중에서 ‘-거리-, -그리-, -대-, -뜨리-, -크리-, -트리’ 등은 동사 어간을 형성하고, ‘-갈-, -답-, -맞-, -스럽-, -지-, 짝-, -하’ 등은 형용사 어간을 형성한다. ‘-차-, -치-’는 의존어근에 따라 동사 어간을 형성하기도 하고 형용사 어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들 중 일부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다른 한국어 형태 단위들과의 차별성이 지적되어 왔다.

(7) 이익섭(1975):

- 가. 아름-답(다), 착-하(다), 깨끗-하(다), 조용-하(다), 소곤-거리(다), 움직-이(다)
- 나. 굵직-하(다), 나직-하(다), 거므스름-하(다), 분명-하(다), 총명-하(다), 엄격-하(다)

(8) 고영근(1999):

- 가. 따뜻-하(다), 넉넉-하(다), 반듯-하(다), 똑똑-하(다), 씩씩-하(다), 무뎌-하(다), 분명-하(다), 번성-하(다)
- 나. 착-하(다), 아름-답(다), 나쁘다(낮브다), 무섭다(뭇업다), 더럽다(덜업다), 까다롭다, 기껏, 속달뱅이; 이상하다/이상스럽다, 넉넉하다/넉넉히, 급하다/급히, 무겁다(묵업다)/무게(묵에)/묵직하다, 즐기다(즐이다)/즐겁다(즐업다), 노랗다(놀알다)/노랑(놀앙), 빨강(빨ᄉᆫ양)/빨강다(빨ᄉᆫ알다), 꼬꾸라뜨리다(꼬꿀아뜨리다)/꼬꾸라지다(꼬꿀아지다)

(9) 송정근(2009):

- 가. 깨끗(하)다, 시원(하)다, 섭섭(하)다, 움직(이)다
- 나. 거무스름(하)다, 둥긔(하)다, 길쭉(하)다, 달콤(하)다

(10) 남기심 · 고영근(2014), 고영근(2018), 고영근 · 구본관(2018): 아름-답(다), 따뜻-하(다)

(11) 최형용(2016): 갑작-스럽(다), 착-하(다), 따뜻-하(다)

이익섭(1975)의 ‘어근’들 중에서 (7가)는 단일 형태소로 된 어기에 접사 ‘-답-, -하-, -거리-’ 등이 결합하여 용언 어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7나)에서는 복합형태소로 된 어기에 접사 ‘-하-’가 결합하여 용언 어간을 형성하고 있다. (7가)의 예들 중에서 ‘아름-답(다), 착-하(다), 깨끗-하(다)’의 어기 ‘아름-, 착-, 깨끗-’은 모두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며,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의존형식이라는 점에서 비활용 의존어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조용-하(다), 소곤-거리(다), 움직-이(다)’의 어기 ‘조용-, 소곤-, 움직-’은 ‘조용조용, 소곤소곤, 움직움직’ 등의 단어형에서도 관찰된다는 점에서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6)의 비활용 의존어근과는 차이가 있다. 용언의 어근으로 사용되면서 의성의태어의 어근으로도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에 대해서는 (3.2)절에서 다루겠다. 이익섭(1975)는 (7나)의 ‘굵직-(굵-직-), 나직-(낫-익-), 거무스름-(검-우스름-), 분명-, 총명-, 엄격-’을 ‘어근’으로 다루고 있으나 이들은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일반언어학적 정의에서의 ‘어근’으로 보기는 어렵다. ‘굵직-, 나직-, 거무스름-’은 활용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형식이면서 또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의존형식이라는 점에서는 (6)의 예들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이들은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기라는 점에서 이 장에서 다루는 비활용 의존어근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4장에서 다룰 비활용 의존어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8)의 단어들은 모두 고영근(1999)에서 ‘불규칙적 어근’으로 분류한 것들이다. 고영근(1999)는 (8나)에서 보듯이 특정 접미사 하나 또는 둘과만 결합할 수 있는 유일형태소(또는 불구형태소, unique morpheme)들도 불규칙적 어근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영근(1999)의 불규칙적 어근들 중에서 ‘따뜻-, 넉넉-, 똑똑-, 무뎠-, 착-, 아름답-’ 등은 이 절에서 다루고 있는 비활용 의존어근의 예들에 속한다. 이들은 단일 형태소로 되어 있으며 혼자서 사용될 수 없는 의존어근이면서,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근들이다. ‘반듯하(다)’의 ‘반듯-’은 비활용 의존어근에 속하지만 ‘반듯반듯’이라는 의성의태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익섭(1975)의 ‘조용하다, 소

곤거리다, 움직이다'의 어근처럼 이 절에서 다루는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과는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급하다'의 '급(急)' 또한 비활용 의존어근이지만, 한자어 형태소에 속한다는 점에서 (6)의 예들과 다른 유형에 속한다. 한자어 형태소인 비활용 의존어근에 대해서는 (3.3)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8)에서 불규칙적 어근으로 다루고 있는 '분명(分明)-, 번성(蕃盛)-, 이상(異常)-'은 모두 복수의 한자어 형태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근'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영근(1999)에서는 '나쁘다(낮쁘다), 무섭다(뭇엿다), 더럽다(덜엿다), 무겁다(묵엿다)/무게(묵에)/묵직하다, 즐기다(즐이다)/즐겁다(즐엿다), 노랗다(놀앙다)/노랑(놀앙), 빨강(빨ㄱ앙)/빨강다(빨ㄱ앙다), 꼬꾸라뜨리다(꼬꼴아뜨리다)/꼬꾸라지다(꼬꼴아지다)'에서 '낮-, 뭇-, 덜-, ...' 등을 형태소로 분리하고, 이들을 불규칙적 어근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원적으로 이들이 형태소로 분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 한국어 화자들의 의식 속에서 이러한 형태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나쁘-, 무섭-, 더럽-, ...' 등은 현대 한국어에서 형태론적으로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소인 것으로 보며, 따라서 '낮-, 뭇-, 덜-, ...' 등은 어근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다.<sup>15)</sup>

송정근(2009)는 (9가)를 고유어 단일어근으로, (9나)를 고유어 복합어근으로 분류한다. (9가)는 이 글에서의 비활용 의존어근, (9나)는 비활용 의존어기의 예에 해당하며, 이들은 모두 용언의 어기로 사용되고 있다. 남기심·고영근(2014), 고영근(2018), 고영근·구본관(2018)에서 '불규칙적 어근'으로 다루는 '아름, 따뜻'-(10), 최형용(2016)에서 단일어근의 '형태소 어근'으로 다루는 '갑작, 착-, 따뜻'-(11)은 모두 이 글에서 다루는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16)</sup>

15) 단어의 구조에 대한 공시적 시점에서의 형태론적 분석과 어원적 연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16) 남기심·고영근(1993: 216)에서는 '거덜나다, 용쓰다'를 불규칙적 어근에 동사가 붙은 합성어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거덜, 용'은 혼자서도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어근이



이들 선행연구들에서는 비록 단편적인 예들을 제시하고 일관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근, 불규칙적 어근, 단일어근, 형태소 어근’ 등과 같은 상이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주로 용언의 어근들 중 비활용 의존어근을 파악하고 이를 구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용언의 어근들로만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 외에도 다음에서 볼 중첩형 의성의태어의 어기나, 한자어/외래어 어근 등과 같이 그 성격상 비활용 의존어근으로 분석되어야 할 다른 종류의 형태소들도 존재한다.

### 3.2. 용언의 어근과 중첩형 의성의태어의 어기

다음 (12)의 용언 어근들도 혼자서는 단어로 사용될 수 없는 의존형식이며,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근이라는 점에서는 (3.1)절의 (6)과 같은 종류인 것처럼 보인다.<sup>17)</sup>

- (12) i. -거리(다): 모락/무럭<sup>18)</sup>, 시글-, 엉금/양금/엇금/양큼-, ...  
 ii. -스럼(다); 수럭-, ...  
 iii. -업(다): 매끌/미끌-, 부들/보들<sup>19)</sup>, 시끌-, 어질-, ...  
 iv. -지(다): 올멍-, ....  
 v. -하(다): 가뜰/거뜰-, 가분/가뿐-, 보송/부송/뽕송/뽕송-, 수북/소북-,

---

므로 비활용 의존어근이 될 수 없다. 이들은 남기심 · 고영근(1993)의 ‘규칙적/불규칙적 어근’의 구별에서도 ‘규칙적 어근’으로 분석되어야 할 예들이다.

- (가) 거덜이 났어, 거덜을 냈어, 거덜만 나지 않는다면  
 (나) 용은 엄청 썼는데, 용을 있는 대로 썼어, 용만 썼지 성과는 없었어

- 17) (12)에서 이러한 유형의 비활용 의존어근들과 용언 어간 형성의 파생접사들을 모두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 이러한 유형의 비활용 의존어근들도 다양한 내적변화를 보인다: ‘모락/무럭-, 엉금/양금/엇금/양큼-, ...’  
 19) ‘부들-거리(다)’의 ‘부들-’은 몸을 부르르 떠는 모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들-업(다)(부드럽다)’의 ‘부들-’과는 다른 어기이다.

- 수월, 상동-, 자작-,<sup>20)</sup> 포근/푸근, ...
- vi. -거리/대(다): 가동-, 가물/거물/까물/꺼물-, 거드럭/가드락/꺼드럭/  
까드락-, 고물/구물/꼬물/꾸물-, 고분-, 곰실/꼼실-, 군실-, 능청/  
낭창-, 도란/두란-, 두근-, 두덜/투덜-, 두리번-, 보슬/부슬-, 부들/  
바들/푸들-, 비실-, 빈정-, 살강/설강/살강/설강-, 서벽/사박-, 소  
곤/수곤-, 시근/새근/씨근/썰근-, 시부적/사부작-, 어른/아른-, 어  
물/아물-, 우물/오물-, 오들/와들/우들-, 와글-, 우글-, 응얼/용얼/  
옹알-, 이기죽/이죽-, 자작/저작-,<sup>21)</sup> 조잘/주절-, 종달/중덜/쫘달/  
쫘덜-, 종알/중얼-, 지분/자분-, 쭈물/쫘물-, 칭얼/징얼/쪼얼/쪼알  
-, 허둥/하둥-, 화들-, 흥얼-, ...
- vii. -그리/이(다): 간중/견중-, ...
- viii. -그리/크리(다): 웅송-, ...
- ix. -그리/하(다): 가든/거든(/가튼/거튼)-,<sup>22)</sup> 건동/깰동/견동-, ...
- x. -스립/하(다): 시원-, ...
- xi. -업/맞(다): 징글-, ...
- xii. -차/하(다): 우렁-, ...
- xiii. -거리/대/이(다): 거들먹/가들막/꺼들먹/까들막-, 근덕/곤덕-, 끼적  
-, 노닥-, 다독-, 도닥/토닥-, 뒤적/뒤척-, 들먹-, 망설-, 서성-, 속  
닥-, 속삭-, 씨불-, 울렁-, 움직(/움직/움쩍/움찍)-,<sup>23)</sup> 일렁/알랑/  
열렁-, 집적/찹적-, 할딱/헐떡-, 허덕-, ...
- xiv. -거리/대/하(다): 남실/넙실-, 머뭇-, 실긋/살긋/썰긋/썰긋/썰  
긋-, ...
- xv. -뜨리/치/트리(다): 다닥-, ...
- xvi. -거리/그리/대/하(다): 간동(/견동/깰동/견동)-,<sup>24)</sup> ...

20) “액체가 잦아들어 적다”. 이 글에서의 뜻풀이는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  
말샘》을 따른다.

21) “힘없이 천천히 걷다”.

22) ‘가튼/거튼’은 ‘-하-’와만 결합한다.

23) ‘움직/움쩍/움찍’은 ‘-거리-, -대-’와만 결합한다.

- xvii. -거리/대/맞/스럼(다): 능청-, ...
- xviii. -거리/대/업/이(다): 간질, 군살, 반들-, ...
- xix. -거리/대/이/하(다): 깔딱/결딱, 달랑/털렁/팔랑/떨렁-, 덤병/담방  
(/툼병/탐방)-<sup>25)</sup>, 똑딱/똑딱/톡탁/톡탁-, 지결/재깔/재갈-, 질척  
/잘착-, ...
- xx. -거리/대/맞/스럼/차(다): 능글-, ...

용언의 어근으로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들의 예 (6)과 마찬가지로 (12)의 어근들도 혼자서는 단어로 사용될 수 없는 의존어근이며,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근들이다. (12)의 의존어근들 역시 ‘거리-, -그리-, -대-, -뜨리-, -맞-, -스럼-, -업-, -이-, -지-, -차-, -치-, -크리-, -트리-, -하-’ 등과 같은 일정 접사들과 결합한 후에는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여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6)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12)의 예들도 의존어근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접사들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다. ‘모락-, 수락-, 매끌-’ 등과 같이 한 개의 접사와만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는 어근들도 있고(12i-v), ‘가동-, 간중-, 웅송-’처럼 두 개의 접사(12vi-xii), ‘거들먹-, 남실-, 다닥-’처럼 세 개의 접사(12xiii-xv), ‘간질-, 깔딱-, 간동-’처럼 네 개의 접사(12xvi-xix), ‘능글-’처럼 다섯 개의 접사(12xx)와 각각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는 비활용 의존어근들도 존재한다.

(12)의 파생접사들 중에서 ‘거리-, -그리-, -대-, -뜨리-, -이-, -차-, -치-, -크리-, -트리-’ 등은 동사 어간을 형성하고, ‘맞-, -스럼-, -업-, -지-, -차-’는 형용사 어간을 형성한다. 접사 ‘하-’는 결합하는 어근에 따라 형용사 어간을 형성할 수도 있고, 동사 어간을 형성할 수도 있다. 다양한 파생접사들 중에서 특히 ‘거리-, -대-, -이-’가 널리 사용된다. (6)과 (12)에서 파생접사로 사용되는 것들은 대부분 겹친다. ‘거리-, -그리-, -대-, -뜨리-, -맞-, -스럼-, -지-, -차-, -치-, -크리-, -트리-, -하-’는 두 유형 모두에서 용언의 어간 형성을 위한 파생

24) ‘건동/간동/견동-’은 ‘그리-, -하-’와만 결합한다.

25) ‘툼병/탐방-’은 ‘거리-, -대-, -하-’와만 결합한다.

접사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접사 ‘-갈-, -답-, -찍-’은 (6)에서만 보이는 데 반해, ‘-업-, -이-’는 (12)에서만 관찰된다.

(12)의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모두 특정 접사와 결합한 후에야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3.1)절의 용언어근에서만 관찰되는 비활용 의존어근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한 가지 면에서 (3.1)절의 비활용 의존어근들과 차이가 있다. (3.1)절의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용언의 어근으로서만 존재하며, 다른 형태론적 구성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반면에 (12)에서의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용언의 어근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첩에 의해 형성되는 의성의태어의 어기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3.1)절의 비활용 의존어근들과는 다르다. (12)의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아래 (13)에서 보듯이 모두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할 수 있다.<sup>26)27)</sup>

(13) 모락모락/무럭무럭, 수럭수럭, 매끌매끌/미끌미끌, 울멍울멍, 가쁜가쁜  
/거쁜거쁜, 가둥가둥, 간중간중/건중건중, 웅송웅송, 가든가든/거든거

26) 이들 중 일부는 중첩의 어기를 있는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환하기도 한다: ‘울멍-/울멍줄멍, 이죽-/이죽빠죽, ...’

27) 이익섭(1975)의 어근 개념을 따르고 있는 송정근(2009)에서는 의태어 가운데 어근적 지위를 갖는 것을 ‘의태어근’이라 하고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고 있다.

(가) 출렁(출렁), 꺾렁(꺾렁), 덜렁(덜렁), 깡충(깡충), 보글(보글), 싱글(빙글), 티격(태격), 우락(부락)

(나) 덜커덕, 울커덕, 철커덕, 털커덕

(다) 우물(거리다), 허둥(대다), 딸랑(거리다), 비실(대다), 속닥(거리다)

그러나 위의 예들 중에서 (가)의 ‘출렁, 꺾렁, 덜렁, 깡충, 싱글, 티격’, (나)의 ‘덜커덕, 울커덕, 철커덕, 털커덕’, (다)의 ‘딸랑’은 모두 독자적으로 부사 또는 명사(‘티격’)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형태소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익섭(1975)나 송정근(2009)의 ‘어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글에서의 ‘의존어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의 ‘우물-, 허둥-, 비실-, 속닥-’은 비활용 의존어근으로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도 있고,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의 (3.2)절에서 다루는 유형에 속하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든/가쁜가쁜/거쁜거쁜, 징글징글, 시원시원, 우렁우렁, 거들먹거들먹/  
가들막가들막/꺼들먹꺼들먹/까들막까들막, 남실남실/넙실넙실, 다닥  
다닥, 간질간질, 깔딱깔딱/꼴떡꼴떡, 간동간동/건동건동/깁동깁동/견  
동견동, 능청능청, 능글능글, ...

다음 예의 어근들도 일견 (12)의 어근들과 유사한 특성들을 보인다.

- (14) 가. -하(다): 가득/그득/가득/그득, 가만, 몽땅/몽땅/몽탕/몽텅, ...  
나. -거리/대(다): 깡충/깡충/강중/정중/깡쫑/깡쫑, 발각/벌컥/발각/벌  
    끼, ...  
다. -거리/대/이(다): 글썽, 달랑/덜렁/딸랑/떨렁, ...  
라. -거리/대/하(다): 굴뜰/곰뜰/곰뜰/곰뜰, 꼬꼬대, ...  
마. -거리/대/이/하(다): 굴적/곰작/곰적/곰작/곰쩍/곰쩍, 까닥/꺼덕/끄  
    덕/까딱/꺼떡/끄떡, 깜박/깜빡/깜빡/깜빡, 깔딱/꼴떡, 꼬덕/끄떡,  
    들썹, 번득/번득, 번쩍/반짝, 비죽/비쭉/뽕죽/뽕쭉, ...

(14)의 예들은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형식이며, 활용  
어미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거리-, -대-, -이-, -하-’ 등과 같은 특정 접사들과  
결합해야 한다. (6)이나 (12)의 어근들과 마찬가지로 (14)의 어근들도 용언  
의 어간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접사들에는 차이가 있다. (14가)  
의 ‘가득, 가만’ 등은 ‘-하-’와만 결합하고, (14나)의 ‘깡충, 발각’ 등은 ‘-거리-,  
-대-’와만 결합한다. (14다, 14라)의 ‘글썽, 굴뜰’ 등은 세 개의 접사, (14마)  
의 ‘굴적, 까닥’ 등은 네 개의 접사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  
다. (14)의 접사들은 모두 (12)에서 사용되는 접사들이다. 또한 (12)에서와  
마찬가지로 접사 ‘-거리-, -대-, -이-’는 이들 비활용 형식들과 결합하여 동사  
어간을 형성하지만, ‘-하-’는 동사 어간을 형성하기도 있고(‘굴뜰-하(다)’,  
‘까닥-하(다)’ 등), 형용사 어간을 형성하기도 한다(‘가득-하(다)’, ‘가만-하  
(다)’ 등). (14)의 어근들은 또한 (15)에서처럼 중첩형 의성의태어의 어기로

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12)의 어근들과 유사하다.

- (15) 가득가득/그득그득/가득가득/그득그득, 깡충깡충/경충경충/강중강중/경중중중/깡중깡중/경중경중, 글썽글썽, 굼뜰굼뜰/굼뜰굼뜰/꿈뜰꿈뜰/꿈뜰꿈뜰, 굼적굼적/굼작굼작/꿈적꿈적/꿈작꿈작/꿈쩍꿈쩍/꿈작꿈작, ...

그렇지만 (14)의 어근들은 모두 다음에서 보듯이 자립형식이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 다루는 비활용 의존어근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즉 (14)의 어근들은 의존어근이 아니라 자립어근이다.<sup>28)</sup>

- (16) 가. 욕조에 물이 **가득** 찼다.  
나. 그녀는 **깡충** 뛰어서 작은 냇가를 건넜다.  
다.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 괴어 있었다.

### 3.3. 한자어/외래어 어근

(3.1)절과 (3.2)절에서 다룬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모두 고유어들이다. 한국어 용언의 비활용 의존어근에는 한자어나 외래어들도 다수 존재한다. 어근으로 사용되는 한자어나 외래어들은 혼자서 단어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어근들도 존재하지만, 의존어근들도 존재한다.

- (17) 가. 한자어 자립어근: a. 덕(德), 답(答), 실(實), 이(利), ...  
b. 각(角), 감(感), 본(本), ...  
나. 한자어 의존어근: a. 통(通)-, 취(取)-, 대(對)-, 위(爲)-, 강(強)-, ...  
b. 안(眼)-, 경(境)-, 초(草)-, 목(木)-, 가(家)-, ...

28) (14)의 어근들은 모두 단일 형태소로 된 부사이다. 한국어에서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명사나 부사, 관형사 등은 모두 자립어근이며,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형식이다.

(17가)의 한자어들은 자립어근이지만, (17나)의 한자어들은 의존어근들이다. 한자어 어근은 자립어근이나 의존어근 모두 한국어에서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용언의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즉 자립어근이나 의존어근 모두 비활용 어근이다. 2장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에서 자립형식은 모두 활용할 수 없는 비활용 형식이다. 따라서 자립어근에 대해 활용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잉여적인 구별이다. (3.1)절의 (4)와 (5)에서 자립어근인 명사나 부사가 접사 또는 다른 어기와 결합하여 용언 어간을 형성할 수 있듯이, 한자어 자립어근들도 용언의 어근이 될 수 있다. (17가a)의 한자어 자립어근들은 ‘-답-, -롭-, -스럽-, -하-’ 등과 같은 파생 접사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도 있고(18), ‘-겹-, -없-’과 같은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합성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도 있다(19).

(18) -답(答): 실(實), 예(禮), 정(情), ...

-롭(答): 이(利), 폐(弊), 해(害), ...

-스럽(答): 덕(德), 복(福), 색(色), 촌(村), 탐(貪), ...

-하(答): 답(答), 역(逆), 탐(貪), 원(願), ...

(19) 역(逆)-겹(答), 정(情)-겹(答), 흥(興)-겹(答), ...

실(實)-없(答), 맥(脈)-없(答), 한(限)-없(答), 수(數)-없(答), ...

(17가b)의 한자어 자립어근들도 (20)에서 보듯이 용언의 어간(‘-지-, -잡-, -받-’ 등)과 결합하여 합성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

(20) 각(角)-지(答), 감(感)-잡(答), 본(本)-받(答), ...

(17가a)와 (17가b)의 차이는 (17가a)의 한자어들은 혼자서도 용언의 어근을 형성할 수 있지만(18), (17가b)의 한자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7나)의 한자어들은 파생어나 합성어의 구성성분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혼자서는 단어로 사용될 수 없는 의존어근들이다. 이들은 또한 혼자

서는 용언의 어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근들이다. (17나)의 한자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17나a)의 ‘통(通)-, 취(取)-, 대(對)-, 위(爲)-, 강(強)-’ 등은 단독으로 용언의 어근이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17나b)의 ‘안(眼)-, 경(境)-, 초(草)-, 목(木)-’ 등은 ‘안경(眼鏡), 초목(草木)’에서처럼 한자어 합성어의 구성성분이 될 수는 있으나 단독으로 용언의 어근이 될 수는 없는 것들이다. (17나a)와 (17나b)의 차이는 전자는 동사나 형용사적 성격을 띠는 것들이지만, 후자는 모두 명사적 성격을 띠는 것들이다. 전자는 중국어나 한문에서 동사나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들이고, 후자는 명사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3.1)절과 (3.2)절에서 비활용 의존어근들이 파생접사를 취하면 용언의 어간이 되어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있듯이, 한자어 비활용 의존어근들도 접사를 취하면 용언의 어간이 되어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한자어 비활용 의존어근들 중 (17나b)의 예들처럼 원래 명사로 사용되던 어근들은 한국어에서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없다. 즉 이들은 단독으로 용언의 어근이 될 수 없는 한자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이다. 그렇지만 (17나a)의 예들처럼 동사나 형용사로 사용되던 한자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21)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

- (21) 가. -하(다): 강(強)-, 구(求)-, 상(傷)-, 성(盛)-, 심(甚)-, 약(弱)-, 전(傳)- 정(定)-, 취(取)-, 편(便)-, 향(向)-, ...  
 나. -스럽(다): 상(常)-, 성(聖)-, 잡(雜)-, ...  
 다. -하/스럽(다): 급(急)-, 둔(鈍)-, 변(變)-, 흉(凶)-, ...

한자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의 경우 (21가, 21나)의 예들처럼 ‘-하’나 ‘-스럽’ 중 하나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21다)의 예들처럼 둘 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sup>29)</sup>



한자어 이외에 다른 외래어 어근들의 경우에도 자립어근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의존어근으로 존재하는 경우들로 나눌 수 있으며, 의존어근들은 스스로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근이다.

(22) 가. 자립어근: 버스(bus), 커피(coffee), 골프(golf), ...

나. 의존어근: 험심(handsome)-, 터프(tough)-, 섹시(sexy)-, ...

(22나)의 외래어 비활용 의존어근들도 접사 ‘-하-’와 결합하면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 한자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접사 ‘-하-’뿐만 아니라 ‘-스립-’과도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지만, 다른 외래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의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23). 한자어나 외래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이 파생접사와 결합할 경우 이들은 형용사 어간을 형성한다.

(23) -하(다): 험심(handsome)-, 터프(tough)-, 섹시(sexy)-, 나이브(naive)-, 보이시(boyish)-,<sup>30)</sup> ...

이 장에서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어에서 비활용 의존어근으로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는 것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용언의 어근으로만 출현하는 유형으로 이들은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형용사 또는 동사의 어간을 형성한다(‘감쪽같(다)’). 둘째, 용언의 어근으로 출현하는 한편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할 수 있는 유형이다(‘모락-거리(다), 모락모락’). 이들 또한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동사 또는 형용사의 어간을 형성한

29) 한자어 비활용 의존어근들 중 일부는 부사와 파생접사 ‘-히’와 결합하여 자립어기인 부사를 만들기도 한다: 감(敢)-히, 공(共)-히, 친(親)-히, 특(特)-히, 필(必)-히, ...

30) 외래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섹시(sex-y)’, ‘보이시(boy-ish)’처럼 원래의 언어에서는 여러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기일 수 있으나, 한국어에 차용된 후에는 형태소 분석이 되지 않는 단일 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외래어 ‘섹시(sexy)’, ‘보이시(boyish)’ 역시 비활용 의존어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셋째, 한자어나 외래어 비활용 의존어근으로서 이들은 한자어의 경우에는 파생접사 ‘-하-, -스럽-’과 결합하고, 다른 외래어는 파생접사 ‘-하-’와 결합하여 형용사 어간을 형성한다(‘강-하(다), 험심-하(다)’). ‘감쪽’형과 ‘모락’형의 비활용 의존어근들과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는 접사들은 대체로 일치한다. 접사 ‘-거라-, -그라-, -대-, -뜨리-, -맞-, -스럽-, -지-, -차-, -치-, -크리-, -트리-, -하-’는 두 유형 모두에서 용언 어간 형성의 파생접사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접사 ‘-갈-, -답-, -찍-’은 ‘감쪽’형, ‘-업-, -이-’는 ‘모락’형의 비활용 의존어근들과만 결합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형용사 또는 동사 어간을 형성하지만, 세 번째 유형의 한자어나 외래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형용사 어간만을 형성한다. 접사 ‘-하-, -스럽-’은 세 유형 모두에서 어간을 형성하기 위한 접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는 비활용 의존어근

유형	어간 형성 접사	어간의 유형	예
용언 어근	-갈-, -답-, -맞-, -스럽-, -지-, -찍-, -차-, -치-, -하-	형용사	감쪽갈다, 아름답다, 거렁맞다, 갑작스럽다, 거방지다, 맥찍다, 당차다, 야멸치다, 거나하다
	-거라-, -그라-, -대-, -뜨리-, -차-, -치-, -크리-, -트리-	동사	생똥거리다, 끼끄그리다, 어기대다, 닥뜨리다, 박차다, 꼬불치다, 가중크리다, 닥트리다
용언 어근과 의성의태어의 어기	-맞-, -업-, -스럽-, -지-, -차-, -하-	형용사	능글맞다, 매끌업다(매끄럽다), 수력스럽다, 울멍지다, 우렁차다, 가쁜하다
	-거라-, -그라-, -대-, -뜨리-, -이-, -차-, -크리-, -트리-, -하-	동사	모락거리다, 간중그리다, 가동대다, 다닥뜨리다, 거들먹이다, 다닥치다, 웅송크리다, 다닥트리다, 머뭇하다
한자어/외래어 어근	-스럽-, -하-	형용사	강(強)하다, 상(常)스럽다, 험심(handsome)하다

## 4. 한국어 비활용 의존어기

우리는 3장에서 용언의 의존어근들 중에서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하지 못하는 비활용 형식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의존어근들은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어에는 이들 외에도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비활용 의존형식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2장에서 형태 단위들을 복합성, 자립성, 굴절성(활용성)에 따라 나눌 경우 한국어의 ‘어근’은 ‘자립어근’과 ‘의존어근’으로 나눌 수 있고, 의존어근은 다시 ‘활용 의존어근’과 ‘비활용 의존어근’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기도 마찬가지이다(이 장에서는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과 구별하기 위해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기’를 단순히 ‘어기’로 칭하겠다). ‘어근’과 마찬가지로 ‘어기’도 ‘자립어기’와 ‘의존어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의존어기’는 다시 ‘활용 의존어기’와 ‘비활용 의존어기’로 나누어진다. ‘자립어기’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혼자서 단어로 사용될 수 있다.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명사, 수사, 부사, 관형사’가 모두 자립어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자립어기는 자립어근과 마찬가지로 직접 활용어미와 결합하지 못하는 비활용 어기이다. 3장에서 우리는 한국어에서 용언의 어근으로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에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장에서는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한국어의 비활용 의존어기들 중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 4.1. 활용 의존어근에서 파생된 비활용 의존어기

비활용 의존어기의 첫 번째 유형은 활용할 수 있는 의존어근이 파생접사와 결합하거나 중첩에 의해 비활용 의존어기를 생성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의 비활용 의존어기는 다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 4.1.1. 용언의 어기

활용할 수 있는 의존어근(즉, 단일 형태소로 된 용언의 어간)이 파생접사와 결합하면 접사의 성격에 따라 활용성을 유지하는 활용 의존어기가 될 수도 있고, 활용성을 상실하고 자립어기가 되거나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24)에서 활용 의존어근인 ‘늡-, 익-, 밀-, 높-’에 접사 ‘겉-, 설-, -뜨리-, -다랗-’이 결합하면, 활용 의존어기 ‘겉늡-, 설익-, 밀어뜨리-, 높다랗-’ 등이 만들어진다.

(24) 늡(다)/겉-늡(다), 익(다)/설-익(다), 밀(다)/밀어-뜨리(다), 높(다)/높-다랗(다), ...

(25)에서 활용 의존어근들은 파생접미사와 결합하여 자립어기들을 생성한다.

(25) 명사: 가리(다)/가리-개, 먹(다)/먹-이, 크(다)/크-기, ...  
부사: 희(다)/희-끗<sup>31)</sup>, 같(다)/같-이, 많(다)/많-이, ...

한국어에서 많은 파생접사는 활용 의존어근과 결합하면 어근의 활용성을 없애고 비활용 의존어기를 생성하기도 한다. 다음 예에서 형용사의 어근인 ‘밝-’은 스스로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있는 활용 의존어근이지만(26가), 접미사 ‘-(으)대대-, -(으)땡땡-, -(으)름-’ 등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26나)의 ‘발그대대-, 발그땡땡-, 발그름-’ 등은 (26다)에서 보듯이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기이다. ‘발그대대-, 발그땡땡-, 발그름-’

31) ‘희끗’은 다시 파생접사 ‘-거리/대/이/하-’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등이 활용어미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파생접사 ‘-하-’와 결합해야 한다(26 라)(송재목 2003). 즉 (26나)의 접사들은 활용 의존어근들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들을 형성하는 파생접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32)</sup>

- (26) 가. 밝(다): 밝-다, 밝-았-다, 밝-고, 밝-아, 밝-은, 밝-던, ...  
 나. 밝(다): 밝그대대-, 밝그대대-, 밝그름-, 밝그무레-, 밝그속속-, 밝그스레-, 밝그스름-, 밝그죽죽-, ...  
 다. \*밝그대대-다, \*밝그대대-었-다, \*밝그대대-고, \*밝그대대-어, ...  
 라. 밝그대대-하-다, 밝그대대-하-였-다, 밝그대대-하-고, 밝그대대-하-여, ...

색상형용사의 활용 의존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는 접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sup>33)34)</sup>

- 32)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런 종류의 접사들에 대해 ‘어근 형성 접미사’(송철의 1992: 6), ‘어근 형성요소’(송정근 2007), ‘어근파생 접미사’(홍석준 2014) 등으로 칭하고 있다. 이는 ‘어근’이라는 용어를 이익섭(1975)의 ‘어근’ 개념을 따라서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어근’을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는 형태소로 모든 접사를 제거했을 때 남는 부분’으로 정의한다. 파생접사들과 결합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형식은 ‘어근’이 아니라 ‘어기’이다.  
 33) 이들이 항상 색상형용사의 어근과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종류의 성상형용사 어근과 결합할 수도 있다: ‘짧-름-하(다)(짜름하다), 비뿔-름-하(다)(비뿔름하다); 가늘-스름-하(다)(가느스름하다), 길-으스름-하(다)(기르스름하다), ...’  
 34) 다음 예들의 ‘데데-, 축축-, 축축-, 충충-, ...’ 등도 일견 활용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생성하는 파생접사처럼 보인다.

- (가) 거무테데하(다), 거무축축하(다), 거무축축하(다), 거무충충하(다), 거무칙칙하(다), 노르끄무레하(다), 맵싸하(다), ...

그러나 ‘데데하다, 축축하다, 축축하다, 충충하다, 칙칙하다, 끄무레하다, 싸하다’ 등은 모두 별개의 형용사로 존재한다. ‘데데-, 축축-, 축축-, 충충-, 칙칙-, 끄무레-, 싸-’ 등은 (3.1)절에서 다룬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에 해당한다.

- (27) 가. -(으)께: 가무/거무/까무/꺼무-께<sup>35)</sup>36), 노르/누르-께-, 파르/푸르-께-, ...
- 나. -(으)끄름: 가무/거무/까무/꺼무-끄름-, 노르/누르-끄름-, ...
- 다. -(으)대데/테데: 가무/까무-대데-, 거무/꺼무-테데-, 발그/불그/빨그-대데-, 벌그/불그/빨그-테데-, 파르-대데-, 푸르-테데-, ...
- 라. -(으)댕댕/텅텅: 가무/까무-댕댕-, 거무/꺼무-텅텅-, 발그/불그/빨그-댕댕-, 벌그/불그/빨그-텅텅-, 파르-댕댕-, 푸르-텅텅-, ...
- 마. -(으)레: 가무/거무/까무/꺼무-레-, 발그/벌그/빨그/빨그/빨그/빨그-레-, 파르/푸르-레-, ,,,
- 바. -(으)름: 발그/벌그/빨그/빨그/빨그-름-, ...
- 사. -(으)무레: 노르/누르-무레-, 발그/벌그-무레-, 파르/푸르/퍼르-무레-, ...
- 아. -(으)속속/속속: 가무/까무-속속-, 거무/꺼무-속속-, 발그/불그-속속-, 벌그/불그-속속-, 파르-속속-, 푸르-속속-, ,,,
- 자. -(으)스레: 가무/거무/까무/꺼무-스레-, 노르/누르-스레-, 발그/벌그/불그/불그/빨그/빨그/빨그-스레-, 파르/퍼르/푸르-스레-, ...
- 차. -(으)스름: 가무/거무/까무/꺼무-스름-, 노르/누르-스름-, 발그/벌그/불그/불그/빨그/빨그/빨그-스름-, ...
- 카. -(으)잡잡/접접: 가무/까무-잡잡-, 거무/꺼무-잡잡-, 푸르-잡잡-, ...
- 타. -(으)죽죽/죽죽: 가무/까무-죽죽-, 거무/꺼무-죽죽-, 노르-죽죽-, 누르-죽죽-, 발그/불그/빨그/빨그-죽죽-, 벌그/불그/빨그/빨그-죽죽-, 파르-죽죽-, 퍼르-/푸르-죽죽-, ...

35) 이들의 형태소 경계는 ‘감/검/깎/검-으께’와 같이 밝혀야 하나, 편의상 ‘가무/거무/까무/꺼무-께’와 같이 표기하겠다. 다른 예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6) 비활용 의존어기의 경우에 어근은 종종 내적변화를 겪기도 하고(‘가무/거무/까무/꺼무-, 노르/누르-’ 등), 비활용 의존어기 형성의 파생접사가 변이형을 갖기도 한다(‘-(으)대데/테데-, -(으)댕댕/텅텅’ 등).

(27)의 ‘가무께-, 가무끄름-, 가무대대-, 가무땡땡-’ 등은 모두 활용 의존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비활용 의존어기이다. 이들은 모두 파생접사 ‘-하-’와 결합하여 형용사 어간을 형성한다. (27) 외에도 활용 의존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만들 수 있는 접사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 아래 (28~30)의 비활용 의존어기 형성의 파생접사들은 주로 성상형용사의 활용 의존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생성한다.

(28) ‘-하-’와 결합하는 비활용 의존어기 형성의 접사:

- 가. -곰/쿰/금/큼-: 달-곰/달-쿰/달-금/달-큼-, 매-쿰/매-큼-, ...
- 나. -(으)ㅁ-: 땀-음(띠름)-, 비뿔-음(뻘뿔-음(비뿌름/뻘뿌름)-, 째-음(짜름)-, ...
- 다. -(으)마-: 자그/저그/조그/쪼그/쪼끄-마-, 둥그-마-, ...
- 라. -(으)막-: 나지-막-, 느지-막-, 야트-막-, 여트-막-, 짤-막-, ...
- 마. -숙-: 깊-숙-, 늙-숙-, 어리-숙-, 익-숙-, ...
- 바. -이끼리-: 노리/누리-끼리-, ...
- 사. -장-: 예쁘-/이쁘-장-, ...
- 아. -지근-: 시-지근-, 후답-지근-, ...
- 자. -작-: 늙-작-, 되-작-, 무겁-작-, 좁-작-, ...
- 차. -쭉-: 길-쭉/갈-쭉-, ...

(29) ‘-스럽-’과 결합하는 비활용 의존어기 형성의 접사:

- 가. -광-: 밍-광-, 어리-광-, 우습-광(우스꽝)-, ...
- 나. -살-: 밍-살/맴-살-, 아니꼽-살-, 어줍-살-, ...

(30) ‘-스럽-, -하-’와 결합하는 비활용 의존어기 형성의 접사:

- 가. -살-: 곱-살-
- 나. -촉-: 검-촉-

(28~30)의 ‘달곰-, 밍광-, 곱살-’ 등도 모두 활용 의존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생성된 비활용 의존어기들이다. 3장에서 우리는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근의 경우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기 위해 ‘-갈-, -거라-, -그리-, -답-, -대-, -프리-, -맞-, -스럽-, -지-, -찍-, -차-, -치-, -크리-, -트리-, -하-’ 등과 같은 다양한 접미사들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6). 그렇지만 (27~30)에서 보듯이 활용 의존어근에 파생접미사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비활용 의존어근의 경우에는 이들이 다시 활용성을 갖기 위해 (용언의 어간이 되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파생접미사는 ‘-하-, -스럽-’으로 제한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하-’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지만, 용언의 어근이나 접사에 따라 드물게 ‘-스럽-’과 결합하기도 한다. (27, 28)의 비활용 의존어기들은 접사 ‘-하-’, (29)는 접사 ‘-스럽-’, (30)은 접사 ‘-스럽-, -하-’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한다.

(27~30)에서는 형용사의 활용 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는 접사들이다. 그렇지만 다음 (31)에서 보듯이 드물게 동사의 활용 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는 접사들도 존재한다.

(31) 가. -듬-: 기우/거우/까우-듬-하(다)

나. -(으)ㅁ-: 꺼리-ㅁ-하(다)

다. -짓-: 남-짓-하(다)

라. -(으)ㅁ직-: 꺼리-ㅁ-직-하(다), 먹-음직-하/스럽(다), 믿음-직-하/스럽(다), 바람-직-하/스럽(다), ...

(27~30)에서 형용사 활용 어근이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비활용 의존어기들은 기본적으로 파생접사 ‘-하-’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며, 드물게 ‘-스럽-’도 허용한다. (31)에서 동사의 활용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비활용 의존어기들도 모두 ‘-하-’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지만, ‘-(으)ㅁ직-’과 결합한 경우에는 ‘-스럽-’과도 결합하여 용언 어간을 형성한다(31라).

한국어에서 용언의 활용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는



접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2) 가. 색상형용사: -(으)께-, -(으)끄름-, -(으)대대/데데-, -(으)땡땡/땡땡-, -(으)레-, -(으)름-, -(으)무레-, -(으)속속/속속-, -(으)스레-, -(으)스름-, -(으)잡잡/접접-, -(으)죽죽/죽죽-, ...  
 나. 성상형용사: -곰/곰/곰/곰-, -광-, -(으)모-, -(으)마-, -(으)막-, -살-, -숙-, -이끼리-, -장-, -지근-, -작-, -쭈-, -촉-, ...  
 다. 동사: -듬-, -(으)모-, -(으)모작-, -짓-, ...

#### 4.1.2. 용언과 중첩형 의성의태어의 어기

우리는 (3.2)절에서 용언의 어근으로도 사용되지만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할 수 있는 비활용 의존어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활용 의존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비활용 의존어기 중에는 (4.1.1)절에서처럼 용언의 어기로만 사용되는 형식들이 있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용언의 어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하는 형식들도 존재한다.

- (33) i. -곰/곰/곰/곰/곰/곰:<sup>37)</sup> 시-곰/새-곰/시-곰/새-곰/사-곰/시-곰/새-곰/새-곰-<sup>38)</sup>, ...  
 ii. -근: 시-근/새-근-, ....  
 iii. -끔: 희/해-끔-, ...  
 iv. -(으)르탕/르탕: 곱-을탕/곱-을탕/곱-을탕/곱-을탕(고불탕/구불탕/

37) (28i)의 '달콤하(다), 매콤하(다)'와 관련해서 '달콤달콤, 매콤매콤'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언어사용에서는 이들도 관찰된다. '달콤달콤, 매콤매콤'이 중첩에 의한 합성어로 인정된다면 '달콤-, 매콤-'도 (28i)가 아니라 (32i) 유형에 속하게 된다.

38) 비활용 의존어기의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하는 용언의 어근도 다양한 내적변화를 보이기도 하고('시/새-, 희/해-, 곱/곱/곱/곱-'), 파생접사가 변이형을 보이기도 한다('곰/곰/곰/곰/곰-, -근/큰-').

- 꼬불탕/꾸불팅)-, ...
- v. -(으)랑/렁:- 곱-으랑/곱-으렁/곶-으랑/곶-으렁(고부랑/구부렁/꼬부랑/꾸부렁)-, 무르-렁(물렁)/말랑/몰랑-, ...
- vi. -(으)ㄹ:- 길-음(기름)-, 노르/누르-ㄹ-, 비뚤-음(비뚤름)/삐뚤-음(삐뚤름)-, 파르/푸르-ㄹ-, ...
- vii. -(으)ㄹ작:- 크-ㄹ작-, ...
- viii. -(으)막:- 짹-막(짹막)-, ...
- ix. -(으)ㅅ:- 가무/거무/까무/꺼무-ㅅ-, 고기/구기/꼬기/꾸기-ㅅ-, 기울ㅅ(기웃)-, 노르/누르-ㅅ-, 느리-ㅅ-, 머무-ㅅ-, 붉-웃(불긋)-, 아리/어리<sup>39)</sup>-ㅅ-, 어리/아리<sup>40)</sup>-ㅅ-, 저리/자리/찌리/짜리-ㅅ-, 줄이-ㅅ(조릿)-, 좁-ㅅ(조붓)-, 질기/잘기/찢기/잘가-ㅅ-, 파르/푸르-ㅅ-, ...
- x. -슬:- 곱/곱/곶/곶-슬-, ...
- xi. -신:- 녹/녹-신-, ...
- xii. -실:- 곱/곱/곶/곶-실-, 녹/녹-실-, 넘/남-실-, ...
- xiii. -씩/씩:- 들-씩/달-씩/뜰-씩/딸-씩-, 떠들-씩-, ...
- xiv. -익:- 낮-익(나직)-, 늦-익(느직)-, ...
- xv. -(으)장/정:- 곱-으장/곱-으정/곶-으장/곶으정(고부장/구부정/꼬부장/꾸부정)-, ...
- xvi. -적/작:- 굵-적/깁-작-, 넓-적-, 더듬-적/다듬-작/떠듬-적/따듬-적-, 비-적/바비-작-, 비틀-적(비트적)/배트-작/뻘트-적/뻘트-작-, ...
- xvii. -죽:- 넓-죽-, ...
- xviii. -직:- 굵-직-, 높-직-, 되-직-, 묵-직-, ...
- xix. -쪽:- 길/갈-쪽, 걸-쪽-, ...
- xx. -쫘:- 길-쫘-, ...
- xxi. -찍:- 길-찍-, 넓-찍(넙찍)-, 멀-찍-, ...

39) “혀끝을 찌를 듯이 알알한 느낌이 있다”.

40) “빛이나 그림자, 모습 따위가 희미하게 비치다”.

xxii. -척/착: 질-척/잘-착-, ...

xxiii. -경/강: 늘-경/날-강-, 물-경/물-강/말-강-, ...

xxiv. -큰: 늘/날-큰, 시/새-큰, ...

xxv. -퍼덕/파닥/버덕/바다: 질-퍼덕/잘-파닥/질-버덕/잘-바다-, ...

xxvi. -펼/팍: 얹-펼(알팍)-, 질-펼/잘-팍-, ...

(33)의 파생접사들은 모두 용언의 활용 의존어근들과 결합하여 이들을 비활용 의존어기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sup>41)</sup> ‘시굼-, 시근-, 희끔’ 등은 모두 용언의 활용 의존어근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비활용 의존어기라는 점에서는 (4.1.1)절의 (27~31)의 비활용 의존어기들과 같다. 그렇지만 (33)의 비활용 의존어기들은 (34)에서 보듯이 모두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다르다.

(34) 시굼시굼/새곰새곰/시킴시킴/새콤새콤/시금시금/시름시름/새금새금/  
새름새름, 시근시근/새근새근, 희끔희끔/해끔해끔, 고불탕고불탕/구불  
탕구불탕/꼬불탕꼬불탕/꾸불탕꾸불탕, 고부랑고부랑/구부렁구부렁/꼬  
부랑꼬부랑/꾸부렁꾸부렁, 기름기름, 큼직큼직, 짹따짹따, 가뭇가뭇/거  
뭇거뭇/까뭇까뭇/꺼뭇꺼뭇, 곱슬곱슬/곱슬곱슬/뽀슬뽀슬/뽀슬뽀슬, 녹  
신녹신/녹신녹신, 곱실곱실/곱실곱실/뽀실뽀실/뽀실뽀실, 들썹들썹/달  
썹달썹/뜰썹뜰썹/딸썹딸썹, 나직나직, 고부장고부장/구부정구부정/꼬  
부장꼬부장/꾸부정꾸부정, 굵적굵적/얇작얇작, 넓죽넓죽, 굵직굵직, 길  
쭉길쭉/얇쭉얇쭉, 길쭉길쭉, 길쭉길쭉, 질척질척/잘작잘작, 늘끓늘끓/  
날강날강, 늘큰늘큰/날큰날큰, 질퍼덕질퍼덕/잘파닥잘파닥/질버덕질  
버덕/잘바닥잘바닥, 알팍알팍, ...

41) 이 경우에도 용언의 어근들은 (4.1.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형용사 어근에 해당하고, ‘굽-을렁(구불렁)-, 곱-으렁(구부렁)-, 곱-살-, 떠들-썹-, 늘-경-’ 등과 같은 일부 비활용 의존어기의 예들만 동사 어근에서 생성된다.

(4.1.1)절의 비활용 의존어기 (27~31)과 (33)의 비활용 의존어기 사이에 보이는 또 다른 차이점은 이들이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접사들에 있다. (4.1.1)절의 비활용 의존어기들은 대부분 접사 ‘-하’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으며(27, 28, 30), 접사 ‘-광-, -살-, -(으)ㅁ직-, -측’과 결합하는 일부 비활용 의존어기만 ‘-스럼’과 결합한다(29, 30, 31라). 반면에 (33)의 비활용 의존어기들은 아래 (35)에서 보듯이 주로 ‘-하’와 결합하지만, 그 외에도 ‘-거리-, -대-, -스럼-, -이’ 등 다양한 접사들과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sup>42)</sup>

(35) 가. -하(다): 거뭇/가뭇/까뭇/꺼뭇-, 고부장/구부정/꼬부장/꾸부정-, 고불탕/구불텅/꼬불탕/꾸불텅-, 걸쭉, 굵직, 기름, 길쭉/갈쭉, 길쭈름, 길쭈작, 나직, 널쭉, 넓적, 넓쭈름, 노름/누름, 노릇/누릇-, 녹실/녹살-, 높직-, 느릿-, 느직-, 되직-, 멀쭉-, 묵직-, 불긋-, 비뚜름/빼뚜름-, 시금/새금/시금/새금/시금/시금/새금/새금-, 아릿/어릿, 알쭉, 저릿/자릿/쪼릿/짜릿-, 조붓, 째막-, 파름/푸름, 파릇/푸릇-, ...

나. -거리/대(다): 고깃/구깃/꼬깃/꾸깃-, 더듬적/다듬작/떠듬적/따듬작-, 비비적/바비작-, 비트적/배트작/빼트적/뺨트작-, 어릿/아릿-, 조릿-, ...

다. -거리/하(다): 곱슬/굽슬/뾰슬/뽀슬-, 질깃/잘깃/찢깃/찼깃-, 희끔/해끔-, ...

라. -스럼/하(다): 알팍-, ...

마. -거리/대/이(다): 굵적/깁작-, 만지작-, 울먹-, ...

바. -거리/대/하(다): 고부랑/구부렁/꼬부랑/꾸부렁-, 곱실/굽실/뾰실/

42) 우리는 (3.2)절에서 용언의 어근뿐만 아니라 의성의태어의 어근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활용 의존어근들도 다양한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활용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12). (35)의 파생접사 ‘-거리-, -대-, -스럼-, -이-, -하’는 모두 (12)에서도 파생접사로 사용된다.

꼭살, 기웃, 넘실/넙실, 녹신/녹산, 늘경/날강, 늘근/날간,  
떠들썩, 머뭇, 물렁/몰랑/말랑, 물경/물강/말강, 시근/새근/  
시큰/새큰, 질퍼덕/잘파닥/질버덕/잘바닥,...

사. -거리/대/이/하(다): 들썹/달썹/뜰썹/딸썹-, 질척/잘착-, 질퍽/잘  
 팍-, ...

용언의 어근에 따라 그리고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는 접사에 따라 어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접사는 달라진다. ‘거뭇-, 고부장-’ 등은 접사 ‘-하-’만을 취할 수 있지만, ‘고갯-, 더듬적-’ 등은 ‘-거리-, -대-’, ‘곱슬-, 질깃-’ 등은 ‘-거리-, -하-’, ‘얕팍-’은 ‘-스럼-, -하-’, ‘굵적-, 만지작-’ 등은 ‘-거리-, -대-, -이-, -고부랑-, 곱실-’ 등은 ‘-거리-, -대-, -하-’, ‘들썉-, 질척-’ 등은 ‘-거리-, -대-, -이-, -하-’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한다. 이들은 ‘-거리-, -대-, -이-’와 결합하면 동사 어간을 형성하고, ‘-스럼-’과 결합하면 형용사 어간을 형성한다. ‘-하-’의 경우에는 형용사 어간을 형성하기도 하고(‘거뭇하다, 곱슬하다’ 등), 동사 어간을 형성하기도 한다(‘곱실하다, nim실하다’ 등). ‘들썉하다, 떠들썉하다’ 등은 동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된다.

(33)에서 용언의 활용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는 파생점들은 다음과 같다.

(36) -굼/곰/쿰/콤/금/큼-, -근-, -곰-, -(으)ㄹ탕/ㄹ탕-, -(으)랑/렁-, -(으)ㄴ-,  
 -(으)ㄴ직-, -(으)막-, -(으)ㅅ-, -슬-, -신-, -실-, -씩/씩-, -익-, -(으)장/정-,  
 -적/작-, -죽-, -직-, -쪽-, -쫘-, -찍-, -척/작-, -꿍/강-, -큰-, -퍼덕/파닥/버  
 덕/바닥-, -푹/팍-, ...

이들 접사들은 용언의 비활용 의존어기뿐만 아니라 의성의태어의 어기  
도 형성한다는 점에서 용언의 비활용 의존어기만을 형성하는 (32)의 접사  
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2)의 접사들과 (36)의 접사들은 ‘-(으)ㅁ, -  
(으)ㅁ직, -(으)ㅁㅁ, -ㅁ직, -쭈’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이한 접사들이다.

활용 의존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는 파생접사들은 보통 하나의 어근에 접사 하나가 결합하여 형성되며, (27)~(31), (33)에서 보듯이 어근별로 결합 가능한 파생접사들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만 다음에서처럼 하나의 활용 의존어근에 두 개의 파생접사가 연이어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 (37) 가. -금-(으)레: 시-금-으레-하(다)(시그무레하다)/\*시-레-금-하(다)  
 나. -끔-(으)레: 희-끔-으레-하(다)(희끄무레하다)/\*희-레-끔-하(다)  
 다. -큼-(으)레: 시-큼-으레-하(다)(시크무레하다)/\*시-레-큼-하(다)  
 라. -숙-(으)레: 늙-숙-으레-하(다)(늙수그레하다)/\*늙-으레-숙-하(다)  
 마. -적-스레: 넓-적-스레-하(다)/\*넓-스레-적-하(다)  
 바. -적-스름: 넓-적-스름-하(다)/\*넓-스름-적-하(다)  
 사. -죽-스름: 넓-죽-스름-하(다)/\*넓-스름-죽-하(다)  
 아. -쭈-스름: 길-쭈-스름-하(다)/\*길-스름-쭈-하(다)

(37)의 접사 ‘-금-, -끔-, -큼-, -숙-, -적-, -죽-, -쭈-; -(으)레-, -(으)스레-, -(으)스름’은 모두 활용 의존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할 수 있는 접사들이다. (37)의 예들은 접사 ‘-(으)레-, -(으)스레-, -(으)스름’ 등은 활용 의존어근과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금-/시큼-, 희끔-, 늙숙’ 등과 같은 비활용 의존어기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경우 접사들의 결합순서는 정해져 있으며, 그 순서를 바꾼 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시그무레하다’/\*‘시레금하다’, ‘희끄무레하다’/\*‘희레끔하다’ 등). (37)의 1차 파생어기들 중에서 ‘시금-, 희끔-, 시큼-, 넓적-, 넓죽-, 길쭈’은 모두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할 수 있는 (4.1.2)절 유형이지만, ‘늙숙’은 의성의태어를 형성하지 못하는 (4.1.1)절 유형의 비활용 의존어기이다.

#### 4.1.3. 중첩에 의해 생성된 용언의 어기

활용할 수 있는 의존어근에서 생성되는 비활용 의존어기의 세 번째 유형은 중첩에 의해 생성된다. 활용 의존어근을 중첩하여 만들어진 형식이 그 자체로서는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기가 되는 경우이다.

- (38) 짜(다): 째-째-하(다)/째째래-하(다)/째째름-하(다)/째째름-하(다)/째째-하(다)/째째래-하(다)/째째름-하(다)  
 쓰(다): 쏘-쓰-하(다)/쏘쓰래-하(다)/쏘쓰름-하(다)/쌈쌈-하(다)/쌈쌈래-하(다)/쌈쌈름-하(다)  
 뿔(다): 뿔뿔름-하(다)<sup>43)</sup>

(38)에서 활용 의존어근인 ‘짜-, 쓰-, 뿔-’을 중첩하여 형성된 ‘짹짹, 씹씹-, 뿔뿔름, ...’ 등은 모두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기이다. 이 경우 중첩의 형식은 어기를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의 어기에 자음을 첨가하여 변화를 시키는 유형이다. ‘짹짹, 씹씹-’은 또한 내적변화를 거쳐 ‘짹짹, 씹씹-’을 만들어 내고, 이들은 다시 파생접사 ‘-애-/에, -음-’과 결합하여 ‘짹짜래-, 짹짜름, 씹쓰래-, 씹쓰름’ 등과 같은 비활용 의존어기를 생성한다. 이들 비활용 의존어기는 모두 접사 ‘-하-’와 결합하여 형용사 어가를 형성한다.

#### 4.2. 자립형식에서 파생된 어기

한국어에서 자립형식은 파생접사와 결합하면 또 다른 자립형식을 만들 수도 있고(39), 용언의 어간이 되어 활용할 수 있는 의존어기가 되기도

43) 방언형으로는 ‘뽕떨-하(다)’도 존재한다.

한다(40).

(39) 명사-> 명사: 개-꿈, 날-강도, 구경-꾼, ...

명사-> 부사: 마음-껏, 끝-내, 정말-로, ...

부사-> 부사: 외-따로, 연-거푸, 여태-껏, ...

부사-> 명사: 맹꽁-이, 부엉-이, ...

(40) 명사: 꽃-답(다), 슬기-롭(다), 간사-스럽(다), 궁상-맞(다), 값-지(다), 의  
심-쩍(다), 건강-하(다), 구경-하(다), 사랑-하(다), ...

부사: 꼬덕-거리(다), 번득-이(다), 출렁-대(다), 못-하(다), 잘-되(다), ...

(39)에서는 자립형식인 명사나 부사가 파생접사들과 결합하여 또 다른 자립형식들을 형성하고 있다. 명사 여기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명사나 부사를 형성하기도 하고, 부사 여기에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부사나 명사를 형성하기도 한다. 반면에 (40)에서는 자립형식들이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활용 의존어기(용언의 어간)를 형성하고 있다.

자립형식들은 또한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자립형식들 중 일부는 외래어 접사 ‘-시(視)-, -연(然)-, -틱(tic)-’ 등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없는 의존어기를 형성한다.<sup>44)</sup>

(41) 가. -시(視)-:

(관형사): 과대(過大)-시-, 동일(同一)-시-, 열등(劣等)-시-, ...

(명사): 수단(手段)-시-, 신성(神聖)-시-, 우상시(偶像)-시-, ...

44) 이들 접사들은 노명희(2009)에서 ‘어근형성접미사’로 분류하는 것들이다. 노명희(2009)에서는 ‘거무스름하다’의 ‘-으스름’, ‘높직하다’의 ‘-직’ 등과 함께 이들을 ‘어근형성 접미사’라 칭한다. 노명희(2009)는 이익섭(1975)을 따라 ‘어근’을 정의하고, 이 글에서의 비활용 의존어근이나 비활용 의존어기를 ‘어근’이라 칭한다. (41)의 ‘과대시-, 동일시-, 열등시-, ...’ 등 ‘-시(視)-’와 결합한 형식들은 사전에 명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글에서는 노명희(2009)를 따라 자립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본다.



나. -연(然):- 대가(大家)-연-, 목석(木石)-연-, 학자(學者)-연-, ...

다. -틱(tic):- 아동-틱-, 시골-틱-, 유아-틱-, ...

(41가)에서 접사 ‘-시(視)’와 결합한 어기들은 모두 혼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립어기이다. ‘과대, 동일, 열등, ...’ 등은 후행하는 명사와 결합할 수 있는 관형사이며,<sup>45)</sup> ‘수단, 신성, 우상, ...’ 등은 자립할 수 있는 명사이다. (41가)의 자립어기들이 ‘-시(視)’와 결합한 ‘과대시-, 수단시-’ 등은 그 자체로는 단어가 될 수 없는 의존어기이며,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기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접사 ‘-하-’를 취하면 용언의 어간이 되어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있다. 접미사 ‘-연(然)-, -틱(tic)-’과 결합하는 어기들도 마찬가지이다.<sup>46)</sup>

(42) 과대(자립어기) → 과대시-(비활용 의존어기) → 과대시하-(활용 의존어기)

대가(자립어기) → 대가연-(비활용 의존어기) → 대가연하-(활용 의존어기)

아동(자립어기) → 아동틱-(비활용 의존어기) → 아동틱하-(활용 의존어기)

(4.1.1)절의 (27~31)과 (4.1.2)절의 (33)에서 소개한 고유어 파생접사들이 활용 의존어근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만드는 데 반해, 외래어 파생접사들인 ‘-시-, -연-, -틱-’은 자립형식들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

45) (41가)의 ‘과대, 동일, 열등’ 등에 대해서는 이를 명사의 일종인 ‘관형명사’로 보는 견해(김영옥 1994, 이선웅 2000), 이익섭(1975)의 ‘어근’ 개념을 따라 통사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어근’으로 보는 견해(노명희 2003, 이호승 2003), 중간 범주적인 ‘어근적 단어’로 보는 견해(고신숙 1987, 채현식 2001)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을 관형사로 본다.

46) (41)에서 접사 ‘-시’와 결합하여 형성된 어기들 중 ‘과대시-, 수단시-, 우상시-’ 등은 ‘-하-’뿐만 아니라 ‘-되-’와 결합하여 용언 어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4.3. 한자어 어기

한자어 형식들 중에는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졌으나 혼자서 단어로 사용되지 못하고, 항상 다른 형태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존적인 형식들이 존재한다. 다음 (43)에서 ‘간신-, 간편-, 가련-, 각박-’ 등은 모두 두 개의 한자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기이다.

(43) 가. -하(다): 간신(艱辛)-, 간편(簡便)-, 강인(強韌)-, 서서(徐徐)-, 화려(華麗)-, 확실(確實)-, ...

나. -하/스럼(다): 가련(可憐)-, 각박(刻薄)-, 간단(簡單)-, 공손(恭遜)-, 과감(果敢)-, 구구(區區)-, 군색(窘塞)-, 늠름(凜凜)-, 맹랑(孟浪)-, 무난(無難)-, 부자연(不自然)-, 부잡(浮雜)-, 송구(悚懼)-, 여상(如常)-, 우악(愚惡)-, 조잡(粗雜)-, 죄송(罪悚)-, 지궁(至窮)-, 지독(至毒)-, 지악(至惡)-, 추잡(醜雜)-, 한가(閑暇)-, 한심(寒心)-, ...

위의 예들은 모두 혼자서는 사용될 수 없는 의존어기이며, 또한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기들이다.<sup>47) 48)</sup> 그렇지만 이들은 파생접사 ‘-하-’ 또는 ‘-스럼-’과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와만 결합하거나, ‘-하-, -스럼-’ 둘 다와 결합하는 의존어기들은 존재하지만, ‘-스럼-’과만 결합하는 의존어기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4.2)절에서 특정 외래어 접미사들은 자립형식들과 결합하여 비

47) 이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명사성 불구어근’(시정곤 2001), ‘복합어근’(노명희 2009), ‘명사성 형용사’(목정수 2009) 등으로 분석되어 왔다.

48) ‘간편-하(다)’ 등은 ‘간편+하(다)’의 합성어로 보기도 하고, ‘-하-’ 접미사를 취하는 파생어로 보기도 한다. 또한 ‘간편은 하다, 간편도 하다’ 등을 예로 들어 통사적 구성으로 보기도 한다. ‘간편하다’를 합성어나 파생어로 볼 때에는 ‘간편’은 비활용 의존어기가 되지만, 통사적 구성으로 본다면, ‘간편’ 등의 예는 ‘자립어기’가 된다.

활용 의존어기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았다(41). 이 접사들 중에서 ‘-시(視)’는 의존형식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생성하기도 한다.

(44) 등한(等閑)-시-되/하(다), 확실(確實)-시-되/하(다), ...

(44)에서 ‘등한-, 확실-’은 혼자서 단어가 되지 못하며, 활용어미와 직접 결합하지 못하는 비활용 의존어기이다. ‘등한-, 확실-’이 접미사 ‘-시(視)’와 결합한 ‘등한시-, 확실시-’ 또한 비활용 의존어기이다. 이들은 ‘-되-, -하-’와 결합하면 용언 어간이 되어 활용어미를 취할 수 있는 활용 의존어기가 된다.

(45) 등한-(비활용 의존어기) → 등한시-(비활용 의존어기) → 등한시되-/등한시하-(활용 의존어기)

4장에서는 한국어에서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용언의 어기로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기들에 대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형은 용언의 활용 의존어근에서 형성된 비활용 의존어기들이다. 한국어에는 색상형용사를 중심으로 성상형용사나 동사의 활용 의존어근들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만드는 다양한 파생접미사들이 존재한다. 이들 비활용 의존어기들 중 일부는 용언의 어기로만 사용되고(‘거무께-하(다)'), 일부는 용언의 어기로 사용되면서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하기도 한다(‘시금-하(다), 시금시금’). ‘거무께-’형을 형성하는 접사들과 ‘시금-’형을 형성하는 접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이하다. 용언의 활용 의존어근들은 또한 중첩에 의해 비활용 의존어기를 생성하기도 한다(‘짹짹-하(다)'). 두 번째 유형은 자립형식에 외래어 파생접사 ‘-시-, -연-, -틱-’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 비활용 의존어기들이다(‘과대시-하(다)'). 마지막으로, 복수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의존어기들 중 일부는 스스로는 활용어미와 결합할 수 없는 비활용 의존어기지만, ‘-하-, -스럼-’과 결합하여 용언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간편-하(다)'). 3장에서 다룬 비활용 의존어근

들은 ‘갈-, -거라-, -그라-, -답-, -대-, -프리-, -맞-, -스럼-, -업-, -이-, -지-, -씩-, -차-, -치-, -크리-, -트리-, -하’ 등과 같은 다양한 접사들과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었다. 4장에서 살펴본 비활용 의존어기들의 경우에는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접사가 ‘-거라-, -대-, -스럼-, -이-, -하’로 제한되며, 그 중에서 ‘-하’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들 접사들은 모두 3장의 비활용 의존어근과도 결합하여 용언 어간을 형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 4장에서 다룬 비활용 의존어기는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는 비활용 의존어기

유형		형성 방법	어간 형성 접사	예
활용 의존어근에서 파생	i) 용언의 어기	활용의존어근 + 파생접사	-하-, -스럼-	거무 <b>꺼</b> 하다, 달 <b>곰</b> 하다, 기우 <b>듬</b> 하다, 밭 <b>광</b> 스럼다
	ii) 용언과 중첩형 의성의태어의 어기	활용의존어근 + 파생접사	-하-, -거라-, -대-, -이-	시 <b>굶</b> 하다, 고 <b>깃</b> 거리다, 굵 <b>적</b> 대다, 들 <b>썩</b> 이다
	iii) 용언의 어기	활용의존어근의 중첩	-하-	잡 <b>잘</b> 하다, 솟 <b>쓸</b> 하다, 떨 <b>떠</b> 름하다
자립형식에서 파생		자립형식 + 파생접사	-하-, -되-	과 <b>대</b> 시하다, 수 <b>단</b> 시되다, 대가 <b>연</b> 하다, 아 <b>동</b> 틱하다
한자어 어기		한자어 + 한자어	-하-, -스럼-	간 <b>편</b> (簡便)하다, 가 <b>편</b> (可憐)스럼다

5. 맺음말

형태 단위 중에서 ‘어기(base)’는 ‘복합성, 자립성, 굴절성’의 세 가지 자질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어기는 복합성에 따라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기(어근)’과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기’, 자립성에 따라

혼자서 단어가 될 수 있는 ‘자립어기’와 그렇지 않은 ‘의존어기’, 굴절성에 따라 스스로 굴절접사와 결합할 수 있는 ‘굴절어기’와 그렇지 않은 ‘비굴절어기’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에서 조사를 접사로 보지 않을 경우 명사는 굴절(곡용)하지 않고, 용언만 굴절(활용)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형태 단위 중에서 용언의 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비활용 의존어기’에 대해 이들의 형태론적 성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비활용 의존어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은 용언의 어근으로만 사용되는 형식이고(‘감쪽같(다)’), 두 번째 유형은 용언의 어근으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중첩에 의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할 수 있는 형식이다(‘모락-거리(다), 모락모락’). 세 번째 유형은 단일 형태소의 한자어나 외래어로 이루어진 형식이다(‘강(強)-하(다), 험심(handsome)-하(다)’). 이들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모두 특정 접사와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 ‘감쪽’형과 ‘모락’형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다양한 접사들과 결합하여 어간을 형성한다. ‘거리-, -그라-, -대-, -뜨리-, -맞-, -스릅-, -자-, -차-, -치-, -크리-, -트리-, -하’ 등의 접사는 두 유형 모두에서 어간 형성의 접사로 사용된다. 그렇지만 접사 ‘같-, -답-, -찍’은 ‘감쪽’형에서만, ‘업-, -이’는 ‘모락’형에서만 보인다. ‘감쪽’형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접사는 ‘그라-, -스릅-, -하’이고, ‘모락’형에서는 ‘거리-, -대-, -아’가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의존어근에 따라 어간 형성을 위해 결합할 수 있는 접사의 종류와 숫자는 정해져 있다. 오직 하나의 접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의존어근도 다수 존재하고, 많게는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접사들과 결합하여 상이한 어간들을 형성할 수 있는 의존어근들도 두 유형 모두에서 관찰된다. 세 번째 유형의 한자어나 외래어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과 달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하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접사들이 ‘스릅-, -하’로 제한된다. 이 경우에도 어근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접사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두 접사 모두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비활용 의존어근들은 어근이나 접사에 따라 동사나 형용사 어간을 형성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유형은 형용사 어간만을 형성

한다.

한국어에서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비활용 의존어기들 중에서 용언의 어기를 이루는 것에도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은 용언의 활용 의존어근에서 생성된 비활용 의존어기들이다. 한국어에는 단일 형태소로 이루어진 용언의 어간(즉, 활용 의존어근)들과 결합하여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는 다양한 접사들이 존재한다. 이들 비활용 의존어기들은 용언의 어기뿐만 아니라 사용되기도 하고(‘거무께-하(다)’), 용언의 어기뿐만 아니라 중첩을 통해 의성의태어를 형성하기도 한다(‘시굼-하(다), 시굼시굼’). ‘거무께-’형을 형성하는 접사들과 ‘시굼-’형을 형성하는 접사들은 대체로 서로 다르지만, ‘-(으)ㅁ, -(으)ㅁㅁㅁ, -(으)ㅁㅁ, -ㅁㅁ, -ㅁㅁㅁ’은 ‘거무께-’형과 ‘시굼-’형에서 모두 사용된다. 활용 의존어근들은 이들 접사와 결합하는 대신에 중첩을 통해 비활용 의존어기를 형성하기도 한다(‘짹짹-하(다)’).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비활용 의존어기들의 두 번째 유형은 자립형식에 외래어 파생접사 ‘-시(視)-, -연(然)-, -틱(tic)-’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다(‘과대시(過大視)-하(다)’). 세 번째 유형은 복수의 한자어로 이루어진 비활용 의존어기들이다(‘간편(簡便)-하(다)’). 복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비활용 의존어기들도 파생접사들과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거리-, -대-, -스럼-, -이-, -하-’, 두 번째 유형은 ‘-하-, -되-’, 세 번째 유형은 ‘-하-, -스럼-’과 결합하여 용언의 어간을 형성한다.

한국어에는 이 글에서 다룬 용언의 어기로 사용되는 비활용 의존어기 외에도 다양한 의존어기들이 존재한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신숙(1987), 《조선어리론문법(품사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고영근(1999), 《國語形態論研究(증보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영근(2018), 《우리말 문법, 그 총체적 모습》, 집문당.
-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김영옥(1994), 불완전 계열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국어학》 24, 국어학회, 87-109.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답-, -스랍-, -롭-, 하-’와 ‘的’의 경우,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145-161.
- 김창섭(1995), 국어 파생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애산학회, 165-201.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2014), 《표준국어문법론(제4판)》, 박이정, 190-191.
- 노명희(2003), 어근류 한자어의 문법적 특성,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3-96.
- 노명희(2009), 어근 개념의 재검토, 《어문연구》 3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9-94.
- 목정수(2009),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의 설정 문제- 유형론적 접근과 국어교육적 활용-,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387-418.
- 송재목(2003), 형용사 반복구성- 희디 희다, 크나 크다, 넓고 넓다-, 《국어학》 42, 국어학회, 27-52.
- 송재목(2020), ‘어근’, ‘어기’, ‘어간’을 다시 보며, 《언어》 45-4, 한국언어학회, 891-917.
- 송정근(2007), 현대국어 감각형용사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정근(2009), 고유어 복합 어근 범주 설정에 대하여, 《어문연구》 37-3, 어문연구학회, 145-167.
- 송철의(1992), 국어 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시정곤(2001), 명사성 불구어근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한국어학》 14, 한국어학회, 205-234.
- 이선웅(2000),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한국문화》 2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5-58.
- 이익섭(1975), 국어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55-165.

이익섭(2005),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익섭(2011), 《국어학개설(3판)》, 학연사.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이호승(2003), 통사적 어근의 성격과 범위,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373-397.

채현식(2001), 한자어 연결 구성에 대하여, 《형태론》 3-2, 형태론 편집위원회, 241-263.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홍석준(2014), 한국어 색채형용사에 나타난 파생어근 분석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71(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59-197.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언어 인지과학과]

전화: 031-330-4345

E-mail: jaemog@hufs.ac.kr

투고 일자: 2024. 01. 23.

심사 일자: 2024. 02. 16.

게재 확정 일자: 2024. 06. 05.



Morphological Units in Korean:  
Types of Non-Inflectional Bound Bases  
[Song, Jae-Mog]

한국어 형태 단위의 분류: 비활용 의존어기를 중심으로 [송재목]

Morphological units differ greatly in their nature from language to language, and there are many disparate units within the same individual languages. Morphological units can be divided based on the criteria of independence, complexity, and inflectionability. Most of bound bases of Korean verbs are inflectional in that they can directly take inflectional affixes without being intervened by other morphological units. There are, however, various types of non-inflectional bound bases of Korean verbs. They need a derivational suffix to become inflectional.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ose non-inflectional units in Korean and classify them based on thei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We can divide non-inflectional bound bases of Korean verbs into simple forms (roots) and complex forms depending on their complexity. Non-inflectional bound roots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hree types. First, some of them can only appear as a verbal root: *kamccok-* in *kamccok-kath-*, *sayngttwung-* in *sayngttwung-keli-*. Second, others can be used as a base of reduplication to form onomatopoeic or mimetic words in addition to their usage as a verbal root: *molak-* in *molak-molak* and *molak-keli-* and *nungkul-* in *nungkul-nungkul* and *nungkul-mac-*. Third, some Sino-Korean or foreign bound roots are non-inflectional but can take suffixes *-ha-* or *-sulep-* to become inflectional: *kang-* (强) in *kang-ha-* and *haynsem-* (handsome) in *haynsem-ha-*. The bases of three types use different sets of suffixes to become inflectional. Though their favorite suffixes are different in the first and second type, they share many suffixes.

The type and number of suffixes differ from root to root. Some roots may take just one suffix and others up to five different suffixes.

Non-inflectional complex bound bases can also be divided into three types. First, when some inflectional roots are followed by a specific kind of suffixes or reduplicated, they produce non-inflectional bound bases. They need an additional suffix to regain their inflectionability. Though some of the bound bases only appear in a verb (*kem-wukkey-* in *kem-wukkey-ha-*), others can be a verbal base and a base of reduplicated onomatopoeic or mimetic words (*si-kwum-* in *si-kwum-ha-* and *si-kwum-si-kwum*). A few inflectional roots can be reduplicated to create non-inflectional bound bases of verbs as *cca-p-cca-l-* in *cca-p-cca-l-ha-*. Second, some free roots or bases become non-inflectional after being affixed by a foreign suffix such as *-si-* (視), *-yen-* (然), or *-thik-* (-tic): *kwatay-si-* in *kwatay-si-ha-*, *tayka-yen-* in *tayka-yen-ha-*, and *atong-thik-* in *atong-thik-ha-*. Third, some Sino-Korean bound bases are non-inflectional and always need a derivational suffix *-ha-* or *-sulep-* to form a verbal stem as *kanphyen-* (簡便) in *kanphyen-ha-* or *kalyen-* (可憐) in *kalyen-sulep-*.

Key Words: morphological units, independence, complexity, inflectionability, roots, bases, stems, non-inflectional bound bases